

개혁주의 상담학 관점에서 본 사티어 모델의 종교적 함의와 Paul Tillich의 신 이해에 대한 담론

김성환*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상담분야에 일반상담의 영성이론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과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도입의 방향과 기준들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Satir 모델의 종교적 함의와 이와 연관성이 높은 Paul Tillich의 신 이해를 개혁주의 상담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Satir는 인간을 존재의 핵심인 Self를 중심으로 우주적 생명력의 실체와 평등적 합일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고, Paul Tillich는 존재론적 신관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중심된 자기개념을 제시한다. 그들의 문제점은 계시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의 실존의 위험성, 인간의 죄성과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자력적 자기완성을 주장한다는 점, 그리고 범제신론적 신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일반상담의 영성이론들의 무분별한 유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개혁주의 상담학적 도입 방향과 기준들은,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내재성과 아울러 창조주로서의 초월적 인격성, 인간의 죄의 심각성과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중요성,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인정 및 성경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 사랑의 실천 강조 여부와 아울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과의 연관성 여부 등이다.

주제어 : 사티어, 폴 틸리히, 자기, 존재의 근거, 도입방향

• 논문 투고일: 2017년 9월 21일

• 논문 수정일: 2017년 10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11월 1일

*광신대학교

I. 여는 글

현대에 접어들면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 영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상담이 단순한 상처의 치유나 문제해결의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영적인 차원을 포함한 전인적 치유와 성장을 지향한다고 볼 때 영성적 전인성을 추구하는 심리접근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¹⁾ Satir도 경험적 가족치유 분야의 선구자로서 상담 치유적 접근에 있어 한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더 나아가 가족체계적 접근과 인간의 영성적 차원을 포함하는 영향력 있는 통합적 치유 모델을 제시하였다.²⁾ 기독교 상담적 차원에서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Satir 치유 모델의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치유 모델에서 제시하는 영성적 전인성의 회복과 연관된 종교적 함의에는 비성경적, 비기독교적 요소들이 많다. 따라서 Satir 모델을 기독교상담적 차원에서 개인과 가족의 치유와 성장을 위해 적용하고 활용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환기 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변영인은 Satir의 가족신념, 가치체계 및 치료적 접근이론에 대한 기독교적 분석과 비교를 시도 한바 있다.³⁾ 그러나 Satir의 영성 이해나 종교적 함의가 가장 가까운 신학자의 이론적 관점과의 비교를 통해 Satir 이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기독교 상담신학적 분석을 시도 한 연구는 거의 없어 찾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K. L. Bonnie는 신 이해나 영성 이해에 대한 이해에 있어 Satir 모델의 종교적 함의와 가장 가까운 신학적 관점을 지닌 신학자

1) 김의식, “영적 상담의 적용에 관한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신학이해」 제16권 (1998): 390-393 ; 안석모, “영성과 목회상담”, 『한국교회학을 위한 목회상담학』, 장신 목회상담학회 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31-235.

2) R. Simon “Reaching out to Life: An Interview with Virginia Satir,” *The Family Therapy Network* 13(1989): 36-43.

3) 변영인, “Satir의 가족신념, 가치체계 및 치료적 접근이론의 기독교적 분석과 비교”,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7권(2006): 46-47.

로 Paul Tillich를 들고, 두 학자의 관점의 연관성을 비교하면서 논의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기독교상담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위협하는 두 학자가 지닌 신학적 관점의 한계와 문제점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성경에 기초한 개혁주의 상담학적 관점에서 Satir와 Paul Tillich의 영성과 신 이해에 대한 연관성과 문제점들과 한계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개혁주의 상담학적 관점에서 일반 상담심리학에서 주장하는 영성이론들을 도입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⁴⁾

사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여러 영성이론들의 전반적 스펙트럼 전체를 논의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뿐 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개혁주의 상담학적 관점에서의 영성의 의미도 명확히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필자는 개혁주의 상담학적 영성은 임재하시지만 동시에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기반을 둔다고 본다. 동시에 인간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타락하였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받을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한다. 그리고 구속된 존재로서의 인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 갈 것인가 하는 이슈를 중시한다.⁵⁾ 본 연구에서 필자는 개혁주의 상담학적 관점에서 먼저 Satir 모델이 보여주는 영성과 Self 등 그 종교적 함의를 고찰하고 이어서 Paul Tillich의 신학과 신 이해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두 학자의 관점의 연관성을 찾아보고 비성경적, 비기독교적 문제와 한계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리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리학이 제시하는 여러 영

4) K. L. Bonnie, "Congruence in Satir's Model: Its Spirituality and Religious Significance,"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4(2002): 61-62; R. Schwartz, "Psychotherapy as Spiritual Practice," in *Spiritual Resource in Family Therapy*, ed. F. Walsh (New York: Guilford Press, 1989), 223-239.

5) 류혜옥 · 김명련, "개혁주의 영성과 상담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4권(2002): 30-55.

성이론의 무분별한 도입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략적인 방향과 기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Satir모델의 종교적 함의

1) Satir의 인간 본성과 영성 이해의 특징

Satir는 각 개인의 영과 본질에 대한 접촉을 자신의 치유적 접근의 근간으로 삼았다. Satir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로 믿었고 인간의 내면의 self 안에 내재된 가능성과 자원 그리고 성장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Satir의 본질주의(essentialism)는 인간의 영적 본성과 선함 그리고 성장의 잠재력에 대한 그녀의 확신에서 드러난다. 사티어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역동적(dynamic)인 것으로 이해했다. 그녀는 인간의 성장을 우리들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강한 파워인 동시에 우주적 지성과 지혜와의 연관성을 지닌 생명의 힘(life force)의 자기표출로 기술하면서 그 역동성을 강조한다.⁶⁾

Satir는 각 개인의 영과 본질에 대한 보다 폭 넓은 관점을 제시하였다. Satir는 자신만의 소위 변형체계모델(Transformational System Theory)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1960년대는 대처방식과 의사소통을 강조하였고 1970년대는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1980년대는 인간의 지각체계, 기대 등을 다루는 경험적 변화에 초점을 두었고 1990년대 생애 말년에는 인간의 생명 에너지로 표현되는 영성적 측면을 첨가하여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고 본질적이고 전인

6) V. Satir, *The New Peoplemaking*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1988); Bonnie, "Congruence in Satir's Model," 61-62.

적인 성숙과 변형을 돕는 통합적인 가족 체계 이론을 확립하였다. Satir는 인간을 신적 생명력의 현현체로서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Satir가 주장하는 전인적 성장이나 전인적 영성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체계, 원 가족 역동체계, 나와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서의 조화된 일치성을 추구하는 것과 연관된다.⁷⁾

Satir는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모든 인간은 생명의 현현체로서 생존 뿐 아니라 성장하는데 필요한 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생명에 대한 신비성에 대한 자각과 경외심의 형성을 통해 생명 에너지의 발현이 촉진되고 깊은 영성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Satir는 영성을 인간의 힘보다 훨씬 초월적인 힘으로부터 오는 생명 에너지, 생명의 힘과 연관 지어 설명하면서 영성은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과 전 우주적 존재가 만나는 경험으로 주장하였다.⁸⁾

Satir의 인간의 영성에 대한 이해의 특성은 다음의 몇 가지 차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모든 인간을 생명력의 현현체로서 영성과 신성함을 지니고 태어나며 우주적 생명력을 드러내는 존재로 본다. 인간의 본질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더 깊고 신비로운 차원의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둘째, Satir의 영성적 이해의 특징은 우주적 존재와의 상호연관성(interconnectedness)에 대한 인식으로 독립적이며 개인 관계를 넘어선 상호관계적 영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주적 존재와의 상호연관성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전제한 하나님과의 합일과 연관된다. 다시 말해 초월적이고 지배적인 하나님에 의해 함몰되는 하나님과의 하나 됨을 느끼는 합일적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Satir의 영성적 이해의 특징은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데 있

7) 이영란, "Satir 변형체계이론과 영성적 전인성 추구",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18권(2009): 218.

8) 이영란, "Satir 변형체계이론과 영성적 전인성 추구", 219.

다. Satir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자기(self)로 설명하면서 “존재하는 나”(I am)인 바로 self가 존재의 핵심이라고 보았다.⁹⁾

2) Satir의 자기(Self)이해

Satir의 ‘Self’ 개념은 영(spirit), 영혼(soul), 생명력(life-force), 본질(essence), 핵심(core), 존재(being)등의 개념과 연관된다. Satir에게 자기는 일종의 생명 에너지인 동시에 우주의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실재와 동일한 것으로 인간 존재의 핵심이자 우리를 서로에게는 물론 우주적 실체에 연결시키는 영성적 에너지라 할 수 있다. 그녀는 우리들 각자가 동일한 생명력(life-force)의 현현체로서 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존재이며 이 생명력이 각자의 생애를 통하여 신체, 정서, 지성, 감각, 영양, 관계, 환경, 영성 등의 8가지 만다라 영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¹⁰⁾

Satir에게 self는 인간 존재의 핵심으로 영성, 본질, 생명력 등으로 표현된다. 그녀는 우주가 이 생명력의 에너지를 가득차 있으며 이 생명에너지는 모든 생명체에 내재 되어 있다고 보았다. 다른 유기체적인 생명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명력이 구체적으로 현현되는 존재이며 이 생명 에너지가 인간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공감, 배려, 연민, 돌봄, 사람을 느끼게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생명에너지를 누르거나 차단하면 자기와 만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도 잘 만나지 못하게 된다고 말한다. Satir는 사람들이 self와 만나 self를 중심으로 내면의 다른 부분들을 다스리면서 self를 표출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자기가 힘을 잃으면 감정이나 지각체계 혹은 신체적

9) 이영란, “Satir 변형체계이론과 영성적 전인성 추구”, 220.

10) V. B. Satir, J. Gerber & M. Gomori, *The Satir Model Family Therapy and Beyond*, 한국버지니아사티어연구회 역, 『사티어모델: 가족치료의 지평을 넘어서』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2000), 21-22.

욕구에 의해 지배당하게 된다고 믿었다.¹¹⁾

Satir는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변화가 self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초월적이고 지배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변화가 아니라 생명력(life-force)으로 일컬어지는 self와의 만남을 통한 영성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변형(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변형은 우주적 생명력인 자기와의 일치성을 치향하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회복을 의미한다.¹²⁾

2. Paul Tillich의 신 이해

1) 신 이해에 대한 상관관계적 접근

Paul Tillich의 신학의 특징은 존재론적(ontological)이며 신 이해의 접근 방식은 “상관 관계적(method of correlation)”이다. Tillich는 자신의 조직신학이 메시지와 상황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상관관계방법’을 사용함을 밝힌다. 이 방법은 물음과 대답, 상황과 메시지, 인간의 실존과 하나님의 현현을 상관 시키는 방법이다. Tillich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상관방법의 특징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철학과 신학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질문과 대답의 관계는 서로 독립적이다. 인간의 실존에서 질문이 주어지고 하나님은 대답하신다. Tillich의 상관관계적 신학적 접근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그의 세계에 대하여 전적 타자가 아니라 인간과 그의 세계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자체이다. 다시 말해 여러 존재 가운데 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존재자들이 존재하는 한 참여되어 있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자체, 존재의 근거이다. 또한 Tillich의 신학적 접근은 “위로부터의 접근”이 아니라 자연신학적인 “아래로 부터의 접근”이다. 그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

11) 김영애, 『사티어의 병산의사소통방법』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2010), 56-57.

12) 이영란, “Satir 변형체계이론과 영성적 전인성 추구”, 226.

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며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서 야기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존재한다. 그에게서 하나님은 여러 대상들 가운데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궁극적으로 문제 되는 것에 대한 상징 자체이다. 유한성을 지닌 실존적 존재인 인간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는 자”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대답” 자체이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 대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관심이나 실존적 사건으로 이해된다.¹³⁾

Tillich의 상관관계적 신학접근방법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질문에 의해 대답이 좌우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철학적 질문이 있어야 비로소 신학적 대답이 주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실존적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비존재로서의 위협을 막아주고 유한성과 실존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무한한 힘에 불과하다.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적 한계를 지닌 유한성을 초월하게 하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으로서의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신을 말하고 있을 뿐 이다.¹⁴⁾

2) Paul Tillich의 신이해의 존재론적 특성

Paul Tillich의 신 개념은 “궁극적 관심”에서 출발한다. 그는 ‘하나님’이라는 용어 대신에 ‘궁극적 관심,’ ‘궁극적 실재(the Ultimate Reality),’ ‘존재의 근거(the Ground Being),’ 등의 상징적인 용어 사용을 선호한다. 그에게서 신학의 대상은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다. 종교적인 경험의

13)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1(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8; 이삼생, “Paul Tillich의 신학방법론”, 목원대학교, 「목원대학교논문집」 제11권(1986): 30-31; Alexander McKewey, *The Systematic Theology of Paul Tillich* (New York: Delta Book, 1964), 37; John Dourley, *The Psyche as Sacrament: A Comparative Study of C. G. Jung and Paul Tillich*(Toronto, Canada: Inner City, 1981), 10.

14) Dourley, *The Psyche as Sacrament*, 10; J. R. Bruce, “The Hegelian Christology of Paul Tillich,”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29(1976): 27-48.

실존적인 입장에서 온 신은 인간에게 궁극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에
게서 하나님은 “인간의 유한성에 간직된 물음에 대한 답, 즉 인간이 궁
극적으로 관심하는 것의 이름이다.”¹⁵⁾

Tillich는 인간의 유한성에 내재하는 신에 대한 질문과 존재의 철학적
분석을 통해 존재론적 신관을 제시한다. 그가 이해하는 신은 다른 존재
들 곁에 혹은 위에 있는 또 하나의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신이 하나의
존재자라면 그 신은 유한성의 범주, 특히 시간과 공간에 종속하게 된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Tillich에게 신은 모든 존재자에게 참여하는
‘존재의 근거(the ground of being)’이며 모든 존재를 있게 하는 ‘존재
의 힘(the power of being)’이다. 다시 말해 존재자체로서의 신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넘어서 너머서 있는 무한한 힘의 존재이다. Tillich에
게 있어 ‘존재의 힘’인 신은 유한성과 무한성을 초월하고 있으며 모든
존재와 존재자의 총체, 즉 세계를 초월하고 있다. 그는 인간을 포함한 유
한한 모든 것 또한 존재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의 무한성에 참여하고 있
다고 본다. 뿐 만 아니라 ‘존재의 근거’인 신은 존재의 근거이므로 존재
구조의 근거가 된다.¹⁶⁾ Tillich가 말하는 존재론적 기본구조는 ‘자기
(self)’와 ‘세계(world)’로 이루어진 양극성의 구조이다. 여기에서 self는
기본적인 구조의 주관적인 측면을 대표하고 세계는 기본적 구조의 객관
적 측면을 대표한다.¹⁷⁾

15) D. Mackenzie Brown, *Ultimate Concern: Tillich in Dialogue* (New York: Harper & Row, 1965), 11, 215; 임형모, “불교의 무와 기독교의 하나님: 나가주와 티리히의 사상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현대와 신학」 제11 권(1987): 75-80.

16) 임형모, “불교의 무와 기독교의 하나님”, 26; 유기중, “화이트 헤드와 폴 티리히의 신이해”, 한국화이트헤드학회, 「화이트헤드 연구」 제32 권(2016): 22-23; Jae Hyun Chung, “The Method of Correlation in Paul Tillich’s Onto-Theological System: A Hermeneutical Critique of Its Logical Structure,” *Korea Journal of Theology* 2(2001): 215-247.

17) Tillich가 말하는 self의 개념은 Satir가 제시하는 self 개념과 연관되므로 본 연구의 후속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Tillich에게 있어 신은 ‘존재자체’이며 그의 신론은 존재론적 신론이다. 그는 ‘신과 세계’를 ‘존재이신 신의 현실성,’ ‘생명이신 신의 현실성,’ ‘관계이신 신의 현실성’의 주제로 언급한다. 그가 말하는 ‘존재이신 신의 현실성’에서 신은 다른 유한 존재자들과 동류의 최고 존재로서의 한 존재가 아니며 모든 존재자에게 참여하며 모든 존재자를 있게 하는 ‘존재의 힘’이다. 그에게서 존재자체인 신은 정체된 정적인 신이 아니며 그 속에서 무한한 충만과 운동과 생성을 내포한다. 존재자체인 신이 존재와 생성을 포괄한다. 존재자체인 신은 모든 유한 존재와 세계를 초월하지만 동시에 내재한다.¹⁸⁾

Tillich에게서 ‘생명이신 신의 현실성’은 “신은 존재자와 존재가 계속 분리되고 재결합하여 분리를 극복하는 영원한 과정으로서의 의미”로 설명한다. 즉 생명은 존재의 현실성이며 그런 의미에서 존재는 삶의 과정이다. Tillich는 ‘생명이신 신의 현실성’에서 ‘영이신 신(God as spirit)’을 논한다. 즉 신은 영이며 삶으로서 현실화 되는 존재자체는 영으로 완성된다. 영으로서의 생명 즉 신이 신적인 생명에 대한 포괄적인 상징이 되는 것이다.¹⁹⁾

Tillich에게서 ‘관계이신 신의 현실성’은 존재 자체이신 신이 모든 관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신의 삶 속에는 모든 관계들이 잠재성과 현실성 사이의 구분을 넘어 현존하고 있다. 따라서 피조물의 독립성은 있을 수 없다. 신은 인식의 대상이 되거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Tillich에게 있어 신과 세계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 세계는 존재자체의 힘으로 존재가 가능하며 세계와 더불어 교제한다. 그의 존재 자체이신 신은 세계에 참여하고 영향을 주지만 자신의 근본적인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²⁰⁾

18) 임형모, “불교의 무와 기독교의 하나님”, 33.

19) 임형모, “불교의 무와 기독교의 하나님”, 34.

20) 임형모, “불교의 무와 기독교의 하나님”, 35-36.

3) Paul Tillich의 자기(the Self) 이해

Paul Tillich는 당시 신학자들이 가지지 못한 심리학적 이해를 도입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self에 대한 개념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그는 신학적 용어로 ‘중심된 자기(the centered self)’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중심된 자기가 있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의 신학에서 ‘중심된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 혹은 ‘진정한 존재 (true being)’로 일컬어진다. 그는 인간은 신성한 영역에 속한 ‘중심된 자기’로 인해 다른 피조물과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그 차별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완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과 연관이 있다.²¹⁾

Tillich는 중심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자기통합(self-integration),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 자기창의성(self-creativity)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 세 가지 역할은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성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기통합은 인간세계에 도덕과 질서를 만들어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초월은 종교를 만들어 내어 인간 자신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영원성을 추구하려는 것이며 자기창의성은 문화를 만들어 내며 지속적인 발전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과 연관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성을 가진 인간은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의 특성들이 마귀적인 파워(demonic power)로 바뀌게 된다. 이 마귀적인 파워는 중심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완전성의 특성들인 통합성, 초월성, 창의성을 부정적 에너지로 바꾸게 된다.²²⁾

21) 임경수, “목회상담 관점에서 본 Paul Tillich의 중심된 자기(the centered self)와 Carl Jung의 ‘하나님의 원형적 형상(the Archetypal Image of God)에 관한 담론’,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제19권(2012): 138.

22) 임경수, “목회상담 관점에서 본 Paul Tillich의 중심된 자기(the centered self)와 Carl Jung의 ‘하나님의 원형적 형상(the Archetypal Image of God)에 관한 담론’, 139.

Tillich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성을 지닌 인간들이 자기의 한계성이나 피조성의 경계선을 망각하고 초월하려는 유혹을 받으면 그는 자신의 진정한 존재(true being) 혹은 본질로 부터 분리가 되는데 이를 소외(estrangement)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²³⁾ 인간이 자기실현의 자유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을 통해 하나님과의 소외를 경험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 되거나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완전하게 잊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 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실존적 불안과 그 가운데 의미를 찾고자 하는 절규는 하나님의 뿌리를 되찾고자 하는 존재론적 용기(ontological courage)이다. 결국 인간의 뿌리인 하나님으로 인해 인간은 소외와 실존적 불안 가운데서도 용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결된 본질을 회복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²⁴⁾

Tillich은 인간이 여러 문화와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신적 실체에 대한 상(image)을 추구해왔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 형태로 투사(projection)된 상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러한 다양한 신적 이미지가 투사 될 수 있도록 이미 존재한 스크린(screen)에 주목한다. 그는 인간들이 실존적으로 소외된 자신의 본질과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위해 투사하는 다양한 신적 실체를 수용해주는 스크린 자체를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으로 본 것이다. Tillich의 이러한 관점은 결국 하나님을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욕구나 필요 그리고 궁극적 관심에 의해 투영된 투사적 산물로 본다는 점에서 전통적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23) 이정기, “실현과정으로서의 생명: 폴 티리히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선교」 제31권(2005): 213-220; Langdon B. Gilkey, *Gilkey on Tillich* (New York: Crossroad, 1990), 123-124; Bernard Martin, *The Existential Theology of Paul Tillich* (New York: Bookman Associates, 1971), 126.

24) Paul Tillich, “Psychoanalysis, Existentialism and Theology,” in *The Meaning of Health*, ed. Perry LeFevre(Chicago: Exploration Press of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1984), 132; Paul Tillich, *The Courage to B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52), 32.

있음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²⁵⁾

3. Satir와 Paul Tillich의 관점의 연관성

1) 인간 본성과 궁극적 실체에 대한 본질주의적 이해

Satir와 Paul Tillich는 공히 인간의 본성을 배후의 질서와 규준과 구조로 규정하는 본질주의적 준거틀을 채택하였다. Satir는 우주는 질서정연하며 우리 인간들도 그러하다고 믿었다. Satir는 자신의 치유모델의 근간을 인간의 영성과 본질과의 접촉하는 것으로 삼았다. 그녀의 본질주의는 인간의 영적 본성의 선함과 성장의 잠재력에 대한 그녀의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녀는 사람들이 열린 눈을 가지지 못해 인간의 질서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그 질서의 근간은 바로 생명력(Life-force) 혹은 궁극적 실체로 이해하면서 이 생명력은 우리들 자신보다 강한 파워로써 우주적 실체와의 연결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²⁶⁾

Satir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여 Tillich도 인간의 내재적 본질을 언급했는데 그에게 있어 본질은 그 자체로 존재하게 하는 본성과 패턴과 규준을 의미한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essential nature)에서 분리되면 본질적 불안, 죄책감과 고통에 휩싸이게 된다고 보았다. Tillich는 이 본성(essential nature)을 궁극적 실체와 연관 지어 이해했다. 앞서 잠시 살펴 본대로 이렇듯 인간이 자신의 본질(essence)과 존재(existence)로부터 파편화되고 왜곡된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상태를 소외(estrangement)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구원의 라틴어 어원 ‘salvus’의 의미가 ‘치유

25) Paul Tillich, “Psychoanalysis, Existentialism and Theology,” *Pastoral Psychology* 87(1958): 16-17.

26) V. B. J. Satir, J. Gerber & M. Gomori, *The Satir Model: Family Therapy and Beyond*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1981), 221; Bonnie, “Congruence in Satir’s Model,” 62.

(to heal) 혹은 ‘완전케 됨(to make whole)’인 것처럼 Tillich에게 구원은 존재와 더불어 본질을 재결합하는 본질화(essentialization)의 과정이다.²⁷⁾

2) 일치성(congruence)과 명상(meditation)에 대한 강조

Satir에게 일치성(congruence)은 자신의 ‘빙산비유모델(the iceberg metaphor model)’ 모델에서 제시한 세 가지 차원 즉 대인관계적 차원(interpersonal dimension), 내재정신적 차원(intrapsychic dimension), 우주적·영적 차원(universal-spiritual dimension) 각각에 의해 촉진되거나 지연되는 현상(phenomenon)을 말한다. 다시 말해 Satir가 말하는 대인관계적 차원, 내재정신적 차원, 우주적·영적 차원 등이 조화롭게 상호연관 되어 통합을 이루는 것이 Tillich가 말하는 존재론적 축들(ontological polarities)의 재결합과 인간의 종교적 요구의 목표로 묘사되는 본질화(essentialization)과정과 병행적으로 연관된다.²⁸⁾

특히 Satir가 말하는 보편적 영적차원은 열망(yearning)과 self로 이루어지는데 열망은 사랑 받고 싶고 받아들여지고 싶고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보편적 갈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이러한 열망과 일치성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간성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이것은 Satir가 보편적인 생명력(life-force)라 일컫는 역동적인 영적 베이스(dynamic spiritual base)와 인간적 연결과 일치성을 이루는 것과는 연관된다. Satir는 일치성을 한 개인의 영적 베이스인 self, 생명력, 생명에너지, 영성 혹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한다. Satir는 보편적 생명력과의 일치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명상을 제시한다.²⁹⁾

27) Bonnie, "Congruence in Satir's Model," 66.

28) Bonnie, "Congruence in Satir's Model," 66.

29) 이영란, "Satir 변형체계이론과 영성적 전인성 추구", 229-231.

Tillich도 인간을 근본적으로 선한 본질적 존재로 보는 Satir와 견해를 같이하여 인간의 본질이 ‘거룩한 생명의 창조적 기반(the creative ground of divine life)’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이러한 거룩한 영적인 생명의 기반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야기하고 완전해지고자 하는 요구를 발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Satir와 마찬가지로 Tillich도 종교성을 인간에 내재해 있는 거룩한 본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룩한 본성과의 연결과 일치성을 이루기 위해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Satir나 Tillich에게 하나님은 인간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며 종교성은 인간존재의 본질과 거룩한 생명력의 기반과 재결합되고 일치성을 이루어 완전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실존적 요구를 내포하고 있다고 간주한 동시에 그 일치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명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³⁰⁾

3) 인간에 대한 다차원체계적 이해

Satir는 인간을 빙산비유와 self의 만달라의 8개의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묘사되는 하나의 ‘다차원체계(multidimensional system)’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Tillich도 인간을 ‘다차원적 통일체(multidimensional unity)’으로 보았다. 그들의 관점에서 한 인간은 연결이 끊어진 여러 부분의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여러 부분이 상호 연관된 복합적 존재이다. 이러한 다차원체계적 관점은 각 요소들 간의 상호연관성과 각 요소들의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할 뿐 아니라 기여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 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뿐 만 아니라 인간의 어느 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다른 요소를 무시하거나 종속시키는 환원주의를 거부한다. 따라서 영(spirit)이 물질보다 우월하거나 지성이 감정보다 우월한

30) Bonnie, “Congruence in Satir’s Model,” 67; Langdon B. Gilkey, “Tillich: The Master of Meditation,” in *The Theology of Paul Tillich*, ed. W. K. Charles(New York: Pilgrim Press, 1982), 25-29.

것이 아니다. 단지 인간존재의 중심인 self가 인간의 여러 부분과 요소들이 스스로를 잘 발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지휘하는 것이다. 인간 생명에 대한 다차원체제적 관점에서 영적인 차원과 물질적 차원은 상호 침투하고 상호연관 된다.³¹⁾

4. Satir와 Paul Tillich의 관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계시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의 실존

Paul Tillich의 상관관계적 신학접근에서도 나타나듯이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유한성을 지닌 인간이 던지는 실존적 요구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할 수 있다. 그에게서 하나님은 우리의 비존재의 위협을 막아주는 존재의 무한한 힘이며 비존재의 충격으로 인해 생긴 실존적 질문에 대한 대답일 뿐 이다. Tillich는 처음부터 신학의 기본적인 요구인 기독교 메시지의 진리를 진술하는 것과 이 진리를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해주는 일을 위해 철학적으로 인간의 실존 문제를 파악하고 이 문제에서 야기되는 질문에 대해 신학적으로 대답하는 철학적 신학을 수립하고자 사용하였다. 그는 신과 세계의 차이와 간극을 메우고자 신의 계시를 세상에서 찾고자 하였고 그 결과 계시의 차별성을 없애고 편준화 시키고 말았다. 그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인격성은 상실되고 '존재' 나 '신적인 생명' 등으로 일컬어진다. 그에게 있어 신의 현실이 세상 속의 현실 속에서 최종적인 참된 현실로 만나 신의 현실과 인간의 현실이 결합된다. 결국 Tillich는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적 한계를 지닌 유한성을 초월하게 하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으로서의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신을 말하고 있을 뿐 이다.³²⁾

Satir도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모든 인간을 생명력의 현현체로서 영성

31) Bonnie, "Congruence in Satir's Model," 74-75.

과 신성함을 지니고 태어나며 우주적 생명력을 드러내는 존재로 본다. Satir의 영성적 이해의 특징은 보편적 존재와의 상호연관성(interconnectedness)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는데 이는 초월적이고 지배적인 하나님에 의해 함몰되는 하나 됨을 느끼는 합일적 경험이 아니라 상호 평등적 호혜적인 합일이다. Satir도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인간 생명력의 역동성과 자율성 그리고 주체성을 강조하는 산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³³⁾

결국 Satir나 Tillich가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과 기독교가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과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적 철학적 사유를 통해 이행되는 보편적 형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결여된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살아있는 신앙,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 관념이나 철학적 사유의 산물일 뿐이다. 박아론도 이러한 방식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계시 안에서 그 자신을 주시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과 갈등과 존재의 용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되는 기능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음을 지적한다.³⁴⁾

2) 인간의 죄성의 간과와 자력적 자기완성 주장

앞서 살펴 본 것처럼 Tillich는 인간의 죄에 대한 성경과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Tillich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로 보았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성을 지닌 인간들이 자기의 한계성이나 피조성의

32) Sungwon Jung, "Transcendental Characteristic of Paul Tillich's God and Its Fallacies," *Chongshin Theological Journal* 21(2016): 125-127.

33) 이영란, "Satir 변형체계이론과 영성적 전인성 추구", 226.

34) 이삼생, "Paul Tillich의 신학방법론", 31-32; 박아론, 『기독교 변증학』(서울: 세종문화사, 1980), 121.

경계선을 망각하고 초월하려는 유혹을 받으면 그는 자신의 진정한 존재(true being) 혹은 본질로 부터 분리가 되는데 이를 소외(estrangement)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 안에 존재의 근거, 존재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바로 소외에서 찾는데 이로 인해 실존적인 비참함을 느끼며 하나님과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Tillich는 인간이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요인으로 불신(unbelief), 교만(hubris), 그리고 탐욕(concupiscence)의 세 가지 요소를 든다. 그가 말하는 불신은 타인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신만의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 경향성으로부터 생긴다. 이 경향성은 self가 낙원의 축복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립된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인데 Tillich는 이러한 자기중심적 경향성이 있기에 오히려 자신의 소중함과 품위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두 번째 요소인 교만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것인데 이러한 교만을 통해 스스로를 신적 영역으로 끌어 올릴게 된다고 보았다. 세 번째 요소는 탐욕인데 근원적인 본질과 떨어져 있는 인간이 불완전을 채우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³⁵⁾

Tillich는 인간이 자기실현의 자유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을 통해 하나님과의 소외를 경험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 되거나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완전하게 잊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되찾고자 하는 재결합에 대한 열망으로 이해한다. 인간의 불신, 교만, 탐욕에 의해 나타나는 소외는 인간들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실존적 불안 가운데서 의미와 하나님의 뿌리를 되찾고자 하는 존재론적 용기(ontological courage)라고 본 것이다. 결국 인간의 뿌리인 하나

35) Justin K. Lim. *Male Mid-Life Crisis*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0), 75; 김기환,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하나님: 신학과 심리학의 대화”,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15권(2002): 186-190;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2(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47.

님으로 인해 인간은 소외와 실존적 불안 가운데서도 용기를 통해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과의 연결된 본질을 회복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³⁶⁾

Satir도 Maslow나 Rogers등 인본주의 심리학자들과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로서 악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의 잠재력과 관련하여 인간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신념, 확신, 사랑, 관심, 인정, 나눔 등의 충분한 내적자원 및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Satir는 앞서 살펴 본 것처럼 self의 개념 제시를 통해 인간인 우리가 우주의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실재인 존재의 핵심과 우주적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Satir는 사람들이 문제나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self로 표현되는 우주적 생명력 혹은 생명 에너지와의 연결에 문제가 생기거나 생명에너지를 억눌러 일치성이 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변형체계이론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자력적으로 전인적 치유와 회복 그리고 전인적 완전성의 성장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³⁷⁾

Satir는 인간이 자력적으로 전인적 치유와 회복 그리고 전인적 완전성의 성장에 이르는 방법으로 명상(meditation), 만다라기법, 깨달음, 자기 가치감의 향상, 직관력을 통한 상상의 기법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삶 자체가 영성과 명상에 휩싸이기를 원했으며 명상을 통한 소위 영성적 전인성의 완성을 전파하였다. 그녀가 제시하는 명상의 단계는 첫째, 먼저 호흡을 조절하고 긴장을 이완하는 단계, 둘째, 인간의 독

36) Tillich, "Psychoanalysis, Existentialism and Theology," 132.

37) 안경승은 청교도들이 가진 목회적 돌봄의 자원의 하나로 mediation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성도를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한 인격적 만남을 전제하는 성경적 meditation개념으로 Satir가 제시하는 meditation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안경승, "성경적 돌봄을 위한 청교도의 자원",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3권(2015): 256-258; 변영인, "Satir의 가족신념, 가치체계 및 치료적 접근이론의 기독교적 분석과 비교", 55-56.

특함과 자기 가치감을 경험하는 단계, 셋째, 생명에너지를 접촉하는 단계, 그리고 인간의 내적 에너지를 활성화 시키는 단계, 넷째,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으며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단계, 다섯째, 자신에게 맞는 것을 수용하고 흘려보내는 단계, 여섯째, 인간의 전인성과 일치성, 통합성을 이루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영성적 측면의 활성화와 자기 가치감 향상시키기 등의 작업에 초점을 맞추는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결국 Satir가 제시하는 명상 기법은 인간이 자신 안에 현현되고 있는 존재적 실체인 생명력, 생명에너지와의 만남과 접촉을 촉진하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전인적 치유와 영성적 전인성을 회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져있다.³⁸⁾

또한 Satir는 만다라 기법의 제시를 통해 신체, 지성, 정서, 감각, 상호작용, 영양, 환경, 영성 등 8가지 부분에서 경험되는 삶을 스스로 돌보며 책임 질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만다라는 여덟 개의 동심원과 그 중심에 우주적 자기인 'self'가 있는데 인간의 전인성과 완전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생명력, 창조, 변화, 질서, 신비한 힘의 통합을 보여준다. 결국 사티어가 제시하는 명상 기법이나 만다라 기법 등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내면의 신적 우주적 생명력을 만나고 접촉하여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자기완성과 온전성을 이루어 신적 존재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Satir가 제시하는 명상 등의 영성적 기법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이루어지는 기도나 성경 묵상, 예배,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나 봉사 등과 같은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적 추구나 자원과는 연관이 없는 것이다.³⁹⁾

여기에서 우리는 Tillich나 Satir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인간의 죄로 인한 전적타락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왔다는 전통적인 기독교적

38) 이영란, "Satir 변형체계이론과 영성적 전인성 추구", 229.

관점과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이며 인간의 모든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여 완전성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통한 죄성과 불완전성과 부패성을 부인하는 사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통한 관계의 회복의 유일한 통로로 보내주신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복음이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 4:12),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9)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 4:12),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9) 등의 구절에서 보듯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유일한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Tillich나 Satir가 주장하듯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온전한 치유와 전인적 성숙에 이르는 것은 소위 존재론적 용기나 명상 또는 만다라 기법 등을 통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각 사람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체로

39) 이영란, “Satir 변형체계이론과 영성적 전인성 추구”, 230-231.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속에서 능력으로 역사 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 하여 수고하노라.”(골 2:28-29) Tillich나 Satir는 인간이 지닌 문제의 가장 큰 근원인 인간의 죄의 심각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간과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영성회복과 자기완성을 이루어 신의 존재에 도달 할 수 있다고 보는 비기독교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⁴⁰⁾

3) 자기초월적 범재신론

Paul Tillich의 신은 존재 자체이다. 그에게 신의 존재는 존재 자체이며 모든 존재에 참여하는 ‘존재의 근원’인 동시에 모든 존재를 있게 하는 ‘존재의 힘’이다. 존재 자체인 신은 정적인 신의 이미지가 아니라 무한한 충만과 운동과 생성과 창조를 의미하는 동적인 신의 이미지이다. 존재 자체가 존재와 생성을 포함하므로 신과 세계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존재의 근거인 신은 모든 유한 존재와 세계를 초월하지만 동시에 세계에 내재한다. 그에게 신과 세계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 존재 자체인 신은 무한한 힘이다. 세계는 존재 자체의 힘으로 그 존재가 가능하게 된다. 그의 신은 존재 하는 모든 것에 참여하며 세계와 교제하며 더 붙여 운명을 나눈다. 신은 존재의 밖에 있지 않고 관계 속에 있으며 신과 세계는 상징적으로 말해 질수 있을 뿐이다. Tillich의 신은 우리의 전 존재를 사로잡는 궁극적 관심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신은 ‘하나의 초월적 존재자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 창조의 근거와 힘으로서 존재 자체 바로 그 분’이라 주장한다. 그는 존재 자체와 존재 일반 사이의 단절과 무

40) 변영인, “Satir의 가족신념, 가치체계 및 치료적 접근이론의 기독교적 분석과 비교”, 55-56.

한한 비약을 통해 ‘철학과 지성의 사도’로서 기독교의 전통적 초월적 유신론을 극복하려 하였지만 결국 범재신론적 신관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Tillich의 신관은 ‘신위의 신’을 말하고 있으며 신을 존재 자체 또는 존재의 기반이며 본질자체와 현실존재를 채워주는 힘으로 설명함으로 기독교가 제시하는 초월성과 임재성의 균형 잡힌 인격적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만유 범재신론적 신 이해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¹⁾

Satir도 인간을 신비하고 무한한 능력을 지닌 생명력(life-force)의 현 형태로 영성과 신성함을 지니고 태어나 우주적 생명력을 드러내는 존재로 본다. 인간의 본질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서 우주적 존재와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Satir가 말하는 우주적 존재와의 상호연관성은 초월적이고 지배적인 하나님에 의해 함몰되는 하나님과의 하나 됨을 느끼는 합일적 경험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전제로 한 합일이다. 이점은 Satir가 하나님을 나와 별개로 존재하는 초월적 대상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핵심인 self를 우주적 자기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합일을 강조함으로 하나님과 self를 함께 경배한다고 할 수 있다.⁴²⁾

따라서 Satir나 Tillich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배격하는 입장을 취하고 만물과 세계를 그 자신 속으로 그 강한 생명력으로 장악하는 신을 말하고 있음으로 그들의 신관이 범재신론적 신관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³⁾

41) 임형모, “불교의 무와 기독교의 하나님” 33-38; 신춘기, “범신론적 신관에 대한 성경적 비판”(박사학위논문, 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2004), 161-162.

42) 이영란, “Satir 변형체계이론과 영성적 전인성 추구”, 225-226.

43) 이삼생, “Paul Tillich의 인간론-그의 실존 이해 중심으로”, 36-37.

5. 심리학적 영성이론 도입의 방향 및 기준

지면 관계상 본 연구에서 개혁주의 영성의 의미와 특성들을 심도 있고 폭 넓게 논의하고 규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심리학이 주장하는 다양한 영성이론들을 도입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최소한의 도입방향과 기준을 간략하게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개혁주의 영성의 개념을 잠시 살펴보자. 변종길은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전통에서 ‘영성’이 ‘경건’이라는 말과 연관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에 대해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⁴⁴⁾ 류혜옥은 개혁주의 영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함을 강조하면서 그 특징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다. 둘째,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다. 셋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다. 넷째,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교제이다. 다섯째, 청지기적 사명과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적 영성이다. 여섯째,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삶이다.⁴⁵⁾

우리는 앞선 고찰과 논의를 통해 Satir 모델이 보여주는 영성과 self 등 그 종교적 함의나 Tillich의 신 이해의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들의 접근방식이나 관점을 통해 인격적 하나님이 실종되고, 인간의 죄의 심각성과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중요성을 무시되고, 인간 자신의 자력적 자기완성을 주장하는 등의 범재신론적 신관과 비성경적인 영성의 이해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개혁주의 영성의 본질적 의미와 특성들에 비춰보면 Satir나 Tillich의 관점의 무분별한 도입

44) 변종길, “화란개혁교회의 영성과 경건-Gisbertus Voetius를 중심으로”, 한국성경신학회, 「교회와 문화」 제6권(2001): 57-80; 류혜옥·김명련, “개혁주의 영성과 상담에 관한 연구”, 37-38에서 재인용.

45) 류혜옥·김명련, “개혁주의 영성과 상담에 관한 연구”, 37-42.

이 있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기독교상담만이 지니는 말미암는 정체성을 심히 왜곡시키고 훼손할 수 있음을 보게 된다. 따라서 개혁상담신학적 관점에서 필자는 심리학이 주장하는 다양한 영성의 개념이나 원리들을 도입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최소한의 도입 방향과 기준을 다음의 몇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적용하고자 하는 영성이론이 성경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창조하신, 초월적인 인격적 존재로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신적 존재의 내재성만을 강조한 채, 동시에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성이론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실종시키는 위험성을 가진다. 셋째 그 영성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타락 그리고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간과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심리학에서 제시하는 영성이론 중 이 부분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깨달음이나 명상 등의 자기수양과 노력을 통해, 궁극적 치유 혹은 자기완성을 이루거나 스스로 신적 경지에 까지 도달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넷째, 도입 혹은 적용하고자 하는 영성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으로 연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인간 자신이 가진 자원이나 능력만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섯째, 성경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영성과 연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여섯째, 그 영성이론이 인간의 존재 이유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목적과 연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III. 닫는 글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 단순한 마음의 상처의 치유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영적차원을 포함하는 전인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기독교상담 분야에도 영성적 전인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심리치유적 접근이 여러 형태로 도입되고 활용되고 있다. 인간의 전인성과 영성적 성숙 및 변화를 강조하는 통합적 가족체계모델을 제시한 Satir는 그 이론적 폭과 깊이 그리고 다양한 상담기법의 유용성 때문에 기독교상담 분야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Satir의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영성 등에 대한 이해와 관점은 성경과 전통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atir가 제시하는 치유모델의 신관과 영성을 포함하는 종교적 함의와 가장 가까운 철학적, 신학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Tillich의 관점과의 연관성을 살피면서 이들의 입장을 개혁주의 상담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Satir는 인간을 신적 생명력의 현현체로 보면서 본질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Satir는 또한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존재의 핵심인 Self와의 만남을 통한 우주적 생명력의 실체인 하나님과의 평등적 합일, 본질과 영성 그리고 다양한 관계의 회복을 촉구한다. Tillich는 하나님을 유한한 실존적 존재인 인간의 질문에 대한 대답 자체, 혹은 궁극적 관심 자체로 보면서 하나님을 인간적 필요에 의해 투사된 스크린으로 보는 존재론적 신관을 피력한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중심된 자기개념을 제시하면서 본질과의 분리를 야기하는 소외 소외(estrangement)를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신적 본질과 만나고 하나님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존재론적 용기로 표현하였다. Satir와 Tillich는 인간본성에 대한 본질주의적 이해에 있어서, 자신 안의 거룩한 생명력의 기반(base)과의 일치성(congruence)과 명상(medit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인간을 다차원적

체계나 다차원적인 통일체로 여러 부분이 상호 연결된 존재로 이해한다는 점에 있어 유사한 관점을 나타낸다.

또한 Satir와 Tillich가 바라보는 신과 영성에 대한 관점들은 인격적 하나님은 실종 될 뿐 아니라 인간의 죄의 심각성과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중요성은 무시되고, 인간 자신의 자력적 자기완성을 주장하는 등의 범재신론적 신관과 비성경적인 영성의 이해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영성 이론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의 극심한 왜곡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혁주의 상담학적 관점에서 다음의 몇 가지의 도입 원리와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기준은, 도입 혹은 적용하고자 하는 심리학 이론의 영성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지만 동시에 우리를 창조하신 초월적 인격자로 보고 있는지, 인간의 죄의 심각성과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지, 성령의 역사를 중시하는지, 성경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과 연관될 수 있는지 등이다.

【 참고문헌 】

- 김의식. “영적 상담의 적용에 관한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신학이해」 제16권 (1998): 390-393.
- 김영애. 『사티어의 빙산의사소통방법』.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2010.
- 김기환.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하나님: 신학과 심리학의 대화”. 한국종교학회. 「종교교육학 연구」 제15권(2002): 186-190.
- 박아론. 『기독교 변증학』. 서울: 세종문화사, 1980.
- 변영인. “Satir의 가족신념, 가치체계 및 치료적 접근이론의 기독교적 분석과 비교”.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7권(2006): 45-77.
- 신춘기. “범신론적 신관에 대한 성경적 비판”. 박사학위논문, 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2004.
- 안경승. “성경적 돌봄을 위한 청교도의 자원”.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3권(2015): 233-258.
- 이삼생. “Paul Tillich의 신학방법론”. 목원대학교. 「목원대학교 논문집」 제11권(1986): 25-40.
- 이영란. “Satir 변형체계이론과 영성적 전인성 추구”. *Korea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제11권(2009): 217-238.
- 안석모. “영성과 목회상담”. 『한국교회를 위한 목회상담학』. 장신목회상담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이정기. “실현과정으로서의 생명: 폴 티리히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선교」 제31권(2005): 203-222.
- 류혜옥 · 김명련. “개혁주의 영성과 상담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4권(2002): 30-55.
- 유기종. “화이트 헤드와 폴 티리히의 신이해”. 한국화이트헤드학회. 「화이트헤드 연구」 제32권(2016): 7-43.
- 임경수. “목회상담 관점에서 본 Paul Tillich의 중심된 자기(the centered self)와 Carl Jung의 ‘하나님의 원형적 형상(the Archetypal Image of God)에 관한 담론’”.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제19권(2012): 133-155.
- 임형모. “불교의 무와 기독교의 하나님: 나가주나와 티리히의 사상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현대와 신학」 제11권(1987): 61-84.

- Bonnie, K. L. "Congruence in Satir's Model: Its Spirituality and Religious Significance."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4 (2002): 57-78.
- Brown, Mackenzie. *Ultimate Concern: Tillich in Dialogue*. New York: Harper & Row, 1965.
- Cameron, Bruce J. R. "The Hegelian Christology of Paul Tillich."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29 (1976): 27-48.
- Chung, Jae Hyun. "The Method of Correlation in Paul Tillich's Onto-Theological System: A Hermeneutical Critique of Its Logical Structure." *Korea Journal of Theology* 2(2001): 215-247.
- Dourley, John. *The Psyche as Sacrament: A Comparative Study of C. G. Jung and Paul Tillich*. Toronto, Canada: Inner City, 1981.
- Gilkey, Langdon B. *Gilkey on Tillich*. New York: Crossroad, 1990.
- Jung, Sungwon. "Transcendental Characteristic of Paul Tillich's God and Its Fallacies." *Chongshin Theological Journal* 21(2016): 118-138.
- Langdon, Gilkey. "Tillich: The Master of Meditation." In *The Theology of Paul Tillich*. Ed. Charles W. Kegley. New York: Pilgrim Press, 1982.
- Lim, Justin K. *Male Mid-Life Crisis*.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0.
- Martin, Bernard, *The Existentialist Theology of Paul Tillich*. New York: Bookman Associates, 1987.
- McKewey, Alexander. *The Systematic Theology of Paul Tillich*. New York: Delta Book, 1964.
- Schwartz, R. "Psychotherapy as Spiritual Practice." In *Spiritual Resource in Family Therapy*. Ed. F. Walsh. New York: Guildford Press, 1989.
- Simon, R. "Reaching out to Life: An Interview with Virginia Satir." *The Family Therapy Network* 13(1989): 36-43.
- Satir, Virginia. *The New Peoplemaking*.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1988.
- Satir, V. B. J., J. Gerber & M. Gomori. *The Satir Model Family Therapy and Beyond*. 한국버지니아사티어연구회 역. 『사티어모델: 가족치료의 지평을 넘어서』.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2000.
- Tillich, Paul. *Systematic Theology*. Vol. 1.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Tillich, Paul. *The Courage to B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52.

Tillich, Paul. *Systematic Theology*. Vol. 2.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Tillich, Paul. "Psychoanalysis, Existentialism and Theology." In *The Meaning of Health*. Ed. Perry LeFevre. Chicago: Exploration Press of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1984.

【 Abstract 】

A Discussion on the Religious Significance of Satir's Model and Paul Tillich's God Concept in the Light of Reformed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Sung hwan Kim

Kwangshin University

This article focuses on discussing the religious significance of Satir's model, which tries to help clients' spiritual wholeness and gives great influence on today's family therapy, with relation to Paul Tillich's God's concept, in the critical view of the reformed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Consequently, it aims to protect identity of Christian Counseling and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due to thoughtless adopting the psychological notions of spirituality, in addition to proposing some directions and criteria of adopting the psychological notions of spirituality. Satir understands clients as man, who pursuit equivalent unification with God on the ground of the Self. Paul Tillich views God as the answer to the question implied existential man's finitude, while proposes "the centered Self" concept. Satir shares Paul Tillich's views on the ont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human nature, the ultimate reality, and the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of man. Satir and Paul Tillich expose some theological problems. Firstly, they exhibit the possibility of danger of the absence of the personality trait of God. Secondly, they neglect sinful nature of human beings and importance of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while asserting self-perfection achieved by man's efforts. Finally, they display the pantheistic view of God. Thus, in the critical light of the reformed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some directions and criteria of adopting the psychological notions of spirituality are proposed.

Key words: Satir, Paul Tillich, self, the ground being, adoption directions